

지상2층 창문유리 교체작업 중 떨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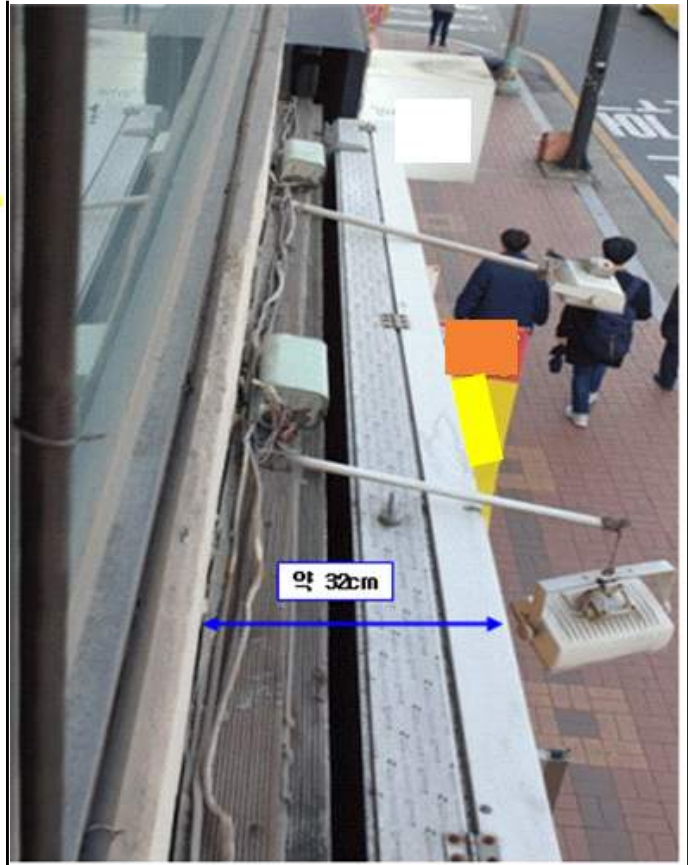
재해개요

2019.03.13.(수) 16:15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OO(지상2층)에서 재해자(49세, 배송 및 시공담당)가 깨진 창문의 유리 교체를 위해 건물 밖 지상1층 간판 상부(높이≒4.5m)에서 창문틀을 잡고 이동 또는 창문틀 외측 실리콘 제거작업 준비 중 창문 경첩이 파단 되면서 창문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, 병원 치료 중 2019.03.21.(목) 05:27분경 사망한 재해임.

재해관련사진



재해상황도



재해발생 위치(지상1층 간판 상부)

재해예방대책

- 『고소작업에 적합한 설비』 사용 또는 『떨어짐 방지조치』 철저
 - 지상 2층 창문 등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할 경우에는 고소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차 등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동식 비계 등을 사용하여야 함.
 - 만일, 고소작업 전용설비 사용이나 작업발판 설치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.
- 떨어짐 위험장소 작업 시 보호구 착용 및 관리 감독 철저
 -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고, 보호구 착용여부에 대해 관리 감독하여야 함.